

주간기도정보

2024. 3. 1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주 1회 가정예배 14% 불과...부모-자녀 신앙은 정비례

목데연, 신앙 계승 위해 한국교회 관심 요청



기독교인 가정 중 가정예배를 주 1회 이상 드리는 비율은 단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 수준이 비례한다는 측면에서 신앙 계승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지앤컴리서치과 함께 조사해 12일 발표한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20%였다. 주 1회 가정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14%로, 7가구 중 1가구꼴이었다.

한 달간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비율(성경 공부 포함)은 44%로 가장 높았고, ‘가족 기도(식사기도 제외)’ 41%, ‘성경 읽기/큐티 나눔’ 34% 순으로 응답했다. 학창 시절 가정예배를 경험한 이들의 신앙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가장 높은 ‘신앙 수준 4단계’ 비율은 가정예배를 경험한 자녀와 전체 평균이 각각 19%와 9%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3명 중 2명(66%)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꼽았다.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어머니가 54%로 압도적이었고, 아버지(13%), 목회자(13%), 교회 친구/선배(11%) 영향은 다소 적었다.

부모와 자녀 간 신앙 수준의 연관성은 확연했다. 신앙 수준을 1-4단계로 나눴을 때 부모와 자녀의 신앙 수준은 일치 확률이 가장 높았다. 대다수는 주일성수, 십일조, 교회봉사, 전도 등 항목에서 ‘부모의 신앙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다.

자녀를 가진 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았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결혼 후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됐다’가 41%, ‘못하게 되었다’가 17%인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 ‘더 잘하게 됐다’는 30%로 감소했고, ‘못하게 됐다’는 23%로 늘었다.

자녀의 신앙 양육에 대한 노력은 3040세대에서 가장 낮았다. ‘노력한다’는 응답은 50대 71%에서 40대에 51%로 낮아졌고, 30대는 43%에 머물렀다. 출석교회에서 가족 신앙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교회는 10곳 중 6곳 정도였다. 대다수(80%)는 영적인 가정을 위해 교회의 ‘부모 역할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목데연은 “이번 조사에서 신앙 계승의 악화 현상이 감지됐다”며 “저출산, 탈종교화, 개신교인 비율 감소로 향후 한국 교회의 양적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앙 계승의 중심 세대인 3040세대의 신앙 악화는 한국교회의 질적 측면의 약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부모세대인 3040세대의 신앙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즉 부모 교육” 이라며 “또 자녀들이 교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 신앙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신명기 11:18-20)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디모데후서 1:5)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믿음이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가정의 예배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두게 하시고 그 생명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휩쓸려 믿음의 유산을 하찮게 여기게 하는 모든 사탄의 간계를 파하시고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의 터가 되게 하여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복음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가정을 세우는 데 힘써, 세상을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면 네 날이 길리라”

‘지방발전’ 외치는 북한, 올해 공장 짓는 20개 지역도 평양 중심으로

해산시 인민반들 지방공장 건설 내세워 세대당 1만원씩 거둬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 평양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방에서 공장 건설 착공식이 줄짓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은 해마다 20개 시·군에 향후 10년 동안 현대적 공장을 세워 지방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얼핏 보면 여러 행정구역에 골고루 포진한 듯하지만 평양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지역인 평남, 황북에 밀집해 있다.

평양과 거리가 먼 지역인 강원도나 양강도에는 각각 1개의 공장이 건설될 뿐이다. 이는 공장 건설을 위한 물자 이송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착공식은 구장군, 운산군, 연탄군, 은천군, 재령군, 동신군, 우시군, 고산군, 이천군, 함주군, 금야군, 김형직군, 장풍군 등 13개 군에서 열렸다고 했으나, 어떤 공장이 들어서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구장군에는 식료공장, 운산군에는 고려약공장, 은천군에는 비료공장, 이천군에는 일용품공장, 함주군에는 동봉농장 등이 있는데 이들 공장의 낙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15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 인민반에서 지방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 보장을 명목으로 가구당 1만 원을 바치라고 했다”면서 “주민들은 이제 시작인데 벌써 돈을 거둬들이니 앞으로 세외부담에 달달 볶일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해산시 인민반에서는 지난 4일부터 12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지방공업공장 건설 자재 보장을 명목으로 북한 돈 1만원,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후방 사업을 명목으로 8,000원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분명히 좋은 정책이지만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지방에서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라는 것”이라며 “결국 돈이 없는 지방에서는 공장 건설도 주민 세외부담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어떤 건설 사업이든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전가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밥술 뜨기조차 힘든 세대가 많은데, 국가에서는 각종 건설 사업을 펼쳐놓고 주민들에게 세외부담을 강요하니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출처: 연합뉴스, 뉴스1, 데일리NK 종합).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명기 25:15)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잠언 28:14-16)

하나님, 지방발전 정책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인다고 하지만 정작 실효성 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북한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가난하고 주린 백성들은 돌아보지 않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공정한 저울추와 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압제당하는 주민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사 영혼에 가장 필요한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참 자유를 얻어 이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안에서도 가장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늘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한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2024동아시아기독교청년대회, 한·중·일 기독교 청년들 복음으로 뭉치다

해묵은 갈등·긴장 극복, 선교적 사명 다짐



한·중·일 크리스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 나라 사이의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짐하는 ‘2024동아시아기독교청년대회’가 최근 강화성 산예수마을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싸매고 고치리라’(사30:26)는 주제 아래 4일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이들 세 나라 청년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와 관련 “한·중·일 삼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강화도에서 3박 4일간 함께 교제와 예배 및 기도하는 가운데 정치·역사적으로 갈등과 긴장 관계인 한·중·일 삼국의 기독교 청년들이 ‘형제 연합의 기쁨’(시133:1)을 누렸다”며 “한·중·일의 연합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회장 장승익 목사(예수마을교회)는 이번 행사에 대해 “현재 동아시아의 삼국이 정치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꼬여 있는 상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삼국이 앙금이 있어 서로를 축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라며 “이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돼야 할 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장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 안의 한 형제들로 얼마든지 함께 모여 연합하고 또 서로를 축복해 주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셋이 함께할 거야’(Three will be together)라는 슬로건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는 주제 아래, 하나 되는 목적은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삼국이 이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데 있다.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 것”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삼국의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는 치유와 연합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로마서 15:5-7)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요한계시록 22:1-2,5)

하나님, 한·중·일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모든 갈등과 긴장을 연합과 용납으로 바꾸실 주님께 합심하여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역사와 문화를 통해 새겨진 인식과 편견으로 하나 됨을 방해하는 다툼과 분열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뜨리시고 서로 간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 이루신 충만한 기쁨을 모든 청년세대에 부어주시고 한마음과 한입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원한 사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세대를 뛰어넘는 선교완성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전심의 순종으로 영혼 구원의 추수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